



(사)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소견서

김규호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회원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들의 만남이 점점 어색해지는 세상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어려워진 세상입니다. 회원님들! 모두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부터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학술대회도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온 까닭에 우리 학회 회원들의 소통도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은 어려운 바램이지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빨리 정상화되어 2021년 가을에 개최되는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30주년 행사는 회원들이 모두 밝은 얼굴로 건강한 만남의 행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이번에 (사)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제16대 회장후보에 입후보한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김규호입니다. 그동안 본 학회의 총무이사, 학술이사, 편집위원장, 국제교류이사, 감사 등을 역임하면서 우리 학회를 창립 초에서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 학회를 잘 알고 있기에 학회 회장으로 입후보하는 것이 조금은 주저되고 걱정이 앞서지만,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약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학회장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는 회원들의 관심과 노력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 발전은 역대 회장과 임원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매년 춘·추계 2회 학술대회의 개최와 보존과학회지 6회 발간을 통한 학술 활동 그리고 오송 학회사무국 운영 등은 학회의 위상 정립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바탕으로 우리 학회를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자 합니다. **“화합과 소통, 그리고 정체성 확립”**을 기치로 우리 학회의 미래를 다음과 같이 설계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분야분류에서 ‘보존과학’을 체계적 정립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연구재단 학문분류표에서 우리 보존과학은 대분류: 자연과학, 중분류: 기타자연과학, 소분류: 문화재 보존과학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처음 분류된 이후, 이직까지 학술연구분류에서 정식으로 구분되지 못한 실정으로 ‘보존과학’은 학문적 정립이 없이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늦게 출발한 ‘과학기술학’, ‘기술정책’, ‘인지과학’, ‘감성과학’은 대분류 복합학에서 중분류로 구분되고 있으며 전공 분야를 소분류, 세분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분야분류는 학문의 방향과 연구의 지표가 되는 기준입니다. 앞으로 ‘보존과학’은 어떤 학술연구분야로 분류되는 것이 좋을지를 함께 고민하고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면에서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보존과학혁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학술연구분야분류에 대한 문제를 검토, 정립하고자 합니다.

둘째, 분과(Working group)의 활성화하여 전문가가 활동하는 학회가 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학술연구분야분류와 상관성이 있습니다만, 보존과학은 전문 분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전공 분야별 보존전문가의 구성되고 이를 통한 학술활동을 기반으로 학술연구분야가 분류, 정립되도록 학회가 노력하겠습니다. 보존과학은 다양한 전공 학문이 모인 융합학문입니다. 회원들의 참여 그리고 현재의 사회, 문화 환경에 맞는 분과를 구성하고 이를 기초하여 학술연구분야를 분류하겠습니다. 현재의 ‘평위원회’를 ‘보존과학분과위원회’로 변경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존과학 회원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셋째, 회원이 함께 소통하는 학회가 되겠습니다.

지금의 학회장 선거는 평위원회에 의한 간접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변경하여 정회원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존과학 세미나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이 분야의 경험과 관련 지식 등이 공유, 소통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홈페이지 운영과 함께 다양한 인터넷 소통 매체(SNS)를 통한 소통의 장을 개선하고 ‘보존과학’의 활동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과 도입을 위하여 ‘보존과학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산학연이 함께 소통하는 학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학회는 산업체, 학교, 연구소(박물관)에서 연구소의 활동이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산학연의 기능과 역할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환경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분야의 전문가이지만, 이에 맞는 위상을 정립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일부 현장에서 급여가 최저임금이라는 점이 이에 대한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체는 보존과학기술자와 보존과학기능자가 현장에서 전문가의 위상 정립, 학교는 산업체, 연구소, 박물관과 연계 교육과 학문적 정립, 연구소와 박물관은 보존과학 분야에서 전문가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회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단체회원 가입과 활동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섯째, 주변 학문과 함께 소통하는 학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학회는 문화재 보존을 대표하는 유일한 학회입니다. 보존과학을 이해하고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과 학계로부터 소통하는 보존과학회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고고학, 미술사, 서지학, 건축학, 화학, 금속, 재료학, 디지털 등 다양한 학문과 함께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보존과학이 관련 분야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에서는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동아시아문화유산보존학회와 세계보존학회(IIC)와 연계하여 우리 학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회원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일원으로 함께 활동하기에 항상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학회 활동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학회를 위하여 봉사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회 발전을 위하여 앞서 언급한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소통해 나가하고자 합니다. 학회 회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그리고 아픈 채찍질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두서없는 이 소견서를 끝까지 읽어주신 회원님에게 감사드리며 어려운 주변 환경에서도 여러분의 건강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08월 03일

제16대 사단법인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장 입후보자 김 규 호

(사)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장 귀하